

무역협회 70주년 음악회 김인호 회장이 특별지휘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74)이 15일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특별 지휘자로 나섰다.

김 회장은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춰 음악회 1부 끝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했다.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아 앙코르 한 곡을 더 지휘했다.

김 회장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학창 시절 지휘자를 희망할 정도로 고전 음악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KBS가 주최한 신년 특별음악회에서도 같은 곡을 특별 지휘했던 이색 경력의 소유자다.

음악회에 앞서 무역협회는 역대 무역협회 회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특별 지휘자로 나서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장, 경제단체장, 정관계 주요 인사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회원사 자리를 지켜 온 경방, 두산, 대한전선, 동아ST, 유한양행 등 5개 기업이 감사패를 받았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매일경제

2016년 07월 18일 월요일
A33면 사람과사람



지휘자로 변신한 무협 회장 김인호 한국무협협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린 무협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01년에도 KBS교향악단을 지휘했다. <사진 제공=무협>



지휘자가 된 김인호 무협 회장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김인호 무협 회장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기념음악회에서 특별지휘자로 나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했다. 김 회장은 2001년에도 KBS교향악단을 지휘했다.

무협제공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15일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무역협회 기념 음악회에서 직접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특별지휘자로 나서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무협 창립 70주년... “강소기업 50만곳 육성”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한국무역협회가 한국 무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50만개의 글로벌 중소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밤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는 역대 무역협회 회장, 경제단체장, 정관계 주요인사, 무역업계 대표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회장은 기념사에서 “수출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구조 고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무역협회는 ‘선진화된 구조로 세계 경제와 조화되는 한국무역’을 주제로 하는 미래무역 비전을 공개했다. 무역협회는 2030년까지 강소 글로벌 기업 50만개를 육성하고 무역과 관련한 모든 검색이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김인호 무역협회장, 오늘 밤 '협회 70주년 음악회' 서 직접 지휘자로

클래식에 담긴 '조화와 균형의 힘' 경영자들에게 전한다



2001년 KBS 교향악단 특별 연주회 지휘 모습.

협회 직원들 건의 수용해 성사
2001년 KBS연주후 15년만에
맹연습 '슬라브행진곡' 선보여

클래식 예찬론자 김인호(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지휘자로 '깜짝 외도'를 시도한다.

김 회장은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한국무역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50여 명과 호흡을 맞춰 차이콥스키의 관현악곡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한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재계 인사와 무역 종사자 1000여 명이 참석한다.

무역협회 직원 대상으로 진행된 70주년 이벤트를 구상 공모에서 선정된 아이디어에 김 회장이 흔쾌히 응하면서 이번 '도전'이 성사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01년 KBS가 주최한 신년 특별음악회에서 같은 곡으로 한 차례 지휘봉을 잡은 바 있다. 그의 도전은 음악의 정신을 경영과 정책에 접목하려 한 특유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경영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음악이 갖는 조화와 균형의 힘

이 도움이 된다는 게 김 회장의 지론"이라며 "전문성은 물론 균형 잡힌 판단력, 타인에 대한 이해가 음악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관객 앞에서 자리어서 김 회장은 사전에 연습 삼매경에 여념이 없었다고 무역협회 측은 전했다. 지난 6일과 13일 강남심포니와 30분씩 합동연습을 했고, 음악회 당일 오후에는 마지막 리허설도 한다.

14일 무역협회 전직 회장 오찬 간담회, 오는 17일 대통령 몽골 순방 동행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이동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튜브 지휘 동영상을 찾아보는 등 열정이 상당하다는 게 협회 직원들의

전언이다.

재계에서 김 회장의 클래식 예찬론은 유명하다.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부친 김영환 목사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가대 활동을 한 김 회장은 재산 목록 1호로 3000장에 이르는 클래식 음반을 꼽는다. 1970년대 말, 미국 시카고 총영사관 경제담당 영사 시절 1200달러의 월급에도 틈만 나면 희귀 음반을 사 모은 이야기는 지금도 종종 회자된다.

재계 관계자는 "각박한 경영 환경, 고위 공무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여수선한 요즘에 김 회장의 오케스트라 지휘가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

무협 70주년 “강소기업 50만개 육성”

잠실에 마이스 복합시설

한국무역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가치중심 무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소기업 50만개를 육성하고, 서울 잠실에 마이스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창립 70주년 행사를 갖고, 이같이 선언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인호 회장은 기념사에서 “무역협회의 사업과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종합적인 무역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실지구에 국제수준의 도심형 MICE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70주년을 맞아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역과 관련한 모든 검색이 ‘키타넷’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 1인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강소글로벌 기업을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50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잠실지구 전시산업(MICE) 시설 건립에 참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회 개최와 한국형 MICE 모델(K-MICE)을 정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창립 70주년 행사에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에 특별지휘자로 나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하고 있다.

거대 경제블록들간에 뗝어지는 메가 FTA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등에 대비,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무역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무역아카데미를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무역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2년 앞선 1946년 7월 31일에 순수 민간경제단체로 설립돼 수출한국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안승현 기자

“수출구조 고도화… 수출기업 경쟁력 높일터”

한국무역협회 창립 70주년

김인호 회장, 기념사서 밝힌
“ICT·IoT 기반 산업구조 전환”
우량 장수 회원사에 감사패

7만여 국내 무역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기념행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역대 무역협회 회장, 경제단체장, 정관계 주요인사, 무역업계 대표, 관계기관 및 임직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무역협회 70년의 발자취와 한국무역의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영상을 상영하고, 우량 장수 회원사 5개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무협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2년 앞선 1946년 7월 31일 105인의 선각자들이 설립한 순수 민간 경제단체로 한국무역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혼란과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무역정책 건의, 애로해결, 해외시장 개척,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디지털무역 확산, 무역인프라 구축 등의 활동으로 세계 수출 6위의 무역 강국을 이룬 한국무역의 신화 창조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무역협회의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사업과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려 종합적인 무역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실지구에 국제수준의 도심형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무역이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역협회는 70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과 함께 ‘선진화된 구조로 세계 경제와 조화되는 한국무역’을 주제로 하는 미래 무역 비전을 공개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융·복

합 시대, 미래 무역의 글로벌 리더’ 비전을 담은 무역협회 신경영 비전과 2030년까지의 10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무협은 또 창립 이래 70년 동안 회원사 자리를 지켜온 우량장수 회원사들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상기업은 (주)경방, 대한전선(주), 동아에스티(주), (주)두산, (주)유한양행 등 5개사다.

한편 무역협회는 기념식에 이어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기념음악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수출 한국을 이끌어온 무역업계 대표, 강남구민과 임직원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음악회에서는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이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특별지휘자로 등장해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한국일보

2016년 07월 18일 월요일
A28면 사람들



‘무역의 마에스트로’ 행진곡을 지휘하다

김인호 회장 무협 70돌 음악회서

김인호(사진) 한국무역협회장이 지휘봉을 잡았다. 김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협 창립 7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특별지휘자로 나서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했다. 무역업계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 1,000여명은 김 회장의 지휘가 끝나자 큰 박수 갈채를 보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낸 김 회장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로 유명하다. 자택에 클래식 음반 서재를 따로 두고, 헨델의 ‘메시아’와 베르디의 ‘레퀴엠’ 같은 음악의 전곡 멜로디를 모두 외울 정도다. 박민식 기자

‘마에스트로’ 김인호 회장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창립 70주년 맞아 오케스트라 특별 지휘 나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수출구조를 고도화하는 내용의 미래무역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15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무역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의 특별지휘자로 나서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김인호 회장은 “무역협회의 사업과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종합적인 무역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실 지구에 국제수준의 도심형 마이스(MICE)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우리 무역이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출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구조 고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기념식에 이어 열린 음악회에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특별지휘자로 직접 나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했다. 김 회장은 평소 고전음악을 즐겨 들으며, 2001년에는 KB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이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특별지휘자로 나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S 교향악단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무역협회는 이날 7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과 함께 ‘선진화된 구조로 세계경제와 조화되는 한국무역’을 주제로 하는 미래무역비전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비전을 담은 무역협회 신(新) 경영비전과 2030년까지의 10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성문재 기자 miseong@

오케스트라 지휘봉 잡은 김인호 무역협회장의 남다른 이벤트 화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무역협회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봉을 잡아 화제다.

17일 무협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기념식에 이어 열린 기념음악회에서 강남 심포니오케스트라의 특별 지휘자로 나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해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수출 한국을 이끌어온 무역업계 대표, 강남구민과 임직원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부친의 영향을 받아 클래식 애호가로 유명하다. 김 회장 부친은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과 동문인 김영환 목사다. 김 회장은 웬만한 클래식 레퍼토리는 외울 정도며 학창시절 꿈이 지휘자였

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1년에도 KBS교향악단을 지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KBS가 주최한 신년 특별음악회에서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해 호평을 받았다. KBS교향악단이 아마추어 지휘로 연주를 펼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이날 김 회장의 지휘는 그가 보여오고 있는 소통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느낌을 준다. 지휘자와 연주자의 소통이 이뤄져야 완벽한 화음이 만들어 지듯 7만여 무역업체들을 대변하는 무협이 해야 할 일을 몸소 보여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다.

1966년 제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김 회장은 공직생활 당시 ‘열린 소통’에 적극 나선 바 있으며 올 초에도 지방 중소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무역협회의 사업과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종합적인 무역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실지구에 국제수준의 도심형 MICE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ICT, IoT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무역이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무협 회장, 경제단체장, 정관계 주요인사, 무역업계 대표, 유관기관 및 임직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무역협회 70년의 발자취와 한국무역의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영상을 상영하고, 창립 이후 70년간 회원사 자리를 지켜온 (주)경방, (주)대한전선, (주)동아에스티, (주)두산, (주)유한양행 등 우량장수 5개 회원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무역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머니투데이 홍정표 기자]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에 힘쓸 것"]



한국무역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저녁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국내 7만여 무역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역대 무역협회 회장, 경제단체장, 정관계 주요인사, 무역업계 대표, 유관기관 및 임직원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2년 앞선 1946년 7월31일 무역에 대한 안목과 혜안을 지닌 105인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 경제단체다.

해방 직후 극심한 혼란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무역입국'의 국가적 사명에 부응해 무역정책 건의, 애로해결, 해외시장 개척,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디지털무역 확산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이 세계 수출 6위의 무역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행사에선 무역협회 70년의 발자취와

한국무역의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영상이 상영되고, 우량 장수 회원사 5개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인호 회장은 기념사에서 "협회 사업과 서비스를 한 단계 높여 종합적인 무역 컨설팅을 제공하고, 잠실지구에 국제수준의 도심형 MICE(마이스)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리 무역이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70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과 함께 '선진화된 구조로 세계경제와 조화되는 한국무역'을 주제로 하는 미래무역비전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비전을 담은 신(新)경영비전과 2030년까지의 10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주)경방, 대한전선(주), 동아에스티(주), (주)두산, (주)유한양행 등 5개사는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들 회원사 창업자들은 해방 이후 혼란기에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역협회의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 수출의 선도자로서 무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역협회는 기념식에 이어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기념음악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수출 한국을 이끌어온 무역업계 대표, 강남구민과 임직원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고,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이 특별지휘자로 나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했다.

70돌 맞은 무협..."50만 기업 육성·잠실 마이스 건립"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협회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6.7.17.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린 무역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특별 지휘를 하고 있다. 2016.7.17.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15일 창립 기념식서 '10대 핵심사업' 제시...김인호 회장 오케스트라 지휘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무역협회가 2030년까지 50만 강소 기업을 자체 육성하고 서울 잠실에서 진행되는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복합시설 건립 사업 참여도 추진한다.

무역협회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대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무역협회의 사업과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종합적인 무역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잠실지구에 국제 수준의 도심형 마이스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잠실운동장 마스터플랜 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기존 삼성동 무역센터와 잠실 마이스 시설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는 전시장, 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이뤄진다.

김 회장은 또 "중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기반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서비스 산업의 수출화에 힘쓰겠다"며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아울러 자체적으로 1인 기업,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강소 글로벌 기업 50만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글로벌 톱5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마이스 모델을 정립해 수출산업화해 나가기로 했다.

역대 무역협회 회장, 경제단체장, 무역업계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창립 이래 70년간 회원사 자격을 유지한 우량장수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해방 이후 경제발전에 기여한 경방, 대한전선, 동아에스티, 두산, 유한양행 등 5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에 이어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기념음악회도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김인호 회장이 직접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해 박수를 받았다. 김 회장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로 유명하며 2001년에는 아마추어로는 처음으로 KBS교향악단을 지휘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1946년 7월 31일 순수 민간 경제단체로 출범했다. 이후 무역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개척 등에 앞장서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6위의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김인호 회장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강남 심포니오케스트라의 특별지휘자로 나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하고 있다. 2016.07.17.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photo@newsis.com